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비판적 검토

김재춘[†] · 박소영

(영남대학교)

A Critic Analysis on the Plan to Recor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 Life Document

[†] Chae-Chun GIM · So-Young PARK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8, 2005 / Accepted August 10, 20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udent assessment plan of subject domain and to propose ways to improve it.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of our student assessment plan of subject domain and overviewed the student assessment cases of several countries. And then researchers discussed the improvement plans of student assessment of subject dom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enlarge the use of detailed subject-ability record space or to assess student's subject-related ability according to subordinate perspectives of subject.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desirable evaluation-perspective and to develop absolute evaluation criteria of each subject and unit. Third,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scores of differentiated test items or equate the scores of differentiated groups.

Key words: Student evaluation, Academic achievement, School- life document.

I. 시작하는 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 성취도, 석차/재적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이 적용되

는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평가체제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 체제에서 상대평가 체제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이 바뀌게 된 데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

[†] corresponding author: 053-810-3121, ccgim@ynu.ac.kr

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과성적 기록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취도와 과목별 석차를 기록하도록 하는 현행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그 신뢰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우홍, 양정호, 2004).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내신에 보다 유리하도록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하였으며, 이는 비슷한 수준의 학교에서 '수'를 주는 재학생의 비율이 40% 정도까지 차이 난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김성인, 2001). 이렇듯 교과성적의 기록이 부풀려지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성적의 낮은 신뢰도가 문제시되고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입전형 반영비중이 높아지게 되자 교과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성적 평가 체제를 상대평가 체제로 바꾸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고등학교의 상대평가는 학습자의 성취도를 소속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타당성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들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김수천 외, 2000; 김재춘 외, 2004; 허경철 외, 1999)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들은 당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시사점과 대안들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안들의 일부는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개선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방식이 바뀐 현 시점에서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라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글을 전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을 통해 현행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한다. 둘째,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대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안을 탐색한다.

II.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방식 변천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정에 따라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정 시기는 '생활기록부 서식 및 처리요령' 시기,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기로 구분하였다.

1. 제1기: 생활기록부 서식 및 처리요령 시기

'생활기록부 서식 및 처리요령' 시기는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더불어 국민학교(1955. 1. 25. 문교부 훈령 제10호), 중학교(1956. 5. 7. 문교부 훈령 제21호), 고등학교(1956. 10. 12. 문교부 훈령 제24호)의 '생활기록부 서식 및 처리요령'을 적용·운영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 생활기록부에 편성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국민학교의 경우, 각 교과마다 하위 평가 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 기

록은 수/우/미/양/가의 5단계 평정치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교과에 대한 특기사항란과 지도경과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특기사항란에는 교과학습 전반에 대해 지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특별한 경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지도경과란에는 교과학습 전반에 걸쳐 개인차에 따른 발달을 알아보고자 구체적 지도 실시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각 교과마다 하위 평가 영역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 기록은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5단계 평정치를 사용하며, 교과에 대한 특기 사항과 지도경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교과, 선택 교과의 보통과정, 선택 교과의 전문과정 등의 구체적 교과명을 기록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또 국민학교 및 중학교와는 달리 교과에 따른 하위 평가 영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활기록부 기입 요령에는 평가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지면의 제약상 생활기록부 자체에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지 않고 기입 요령에만 자세히 제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김수천 외, 2000).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란이 있어 교육의 연계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록 방법은 국민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5단계 평정치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제2기: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시기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시기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의 도입 초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취급요령’(1964. 6. 24. 문교부 훈령 제146호)을 시작으로 하여 제3, 4, 5, 6차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이 지속적으로 변화된 시기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1964년(문교부 훈령 제146호), 1976년(문교부 훈령 제286호), 1989년(문교부 훈령 제459호)의 교과성적 기록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문교부 훈령 제146호)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해당 교과를 평가하도록 한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국민학교, 중학교 각 교과의 평가 항목의 수가 각각 축소되었으며 지도경과란이 삭제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와 실업계의 생활기록부가 따로 마련되면서, 필수/선택 교과의 평가 결과를 각각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성취도 뿐만 아니라 단위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란이 신설되었다.

1976년(문교부 훈령 제286호)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징으로는 국민학교의 경우, 각 교과에 따른 하위 영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기를 합하여 총합평가결과를 기록하던 것을 1, 2학기별로 나누어 학기말 평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평가 기록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수/우/미/양/가의 5단계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1989년(문교부 훈령 제459호)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종전에는 세로로 기록하였던 것을 가로로 기록하도록 모든 란을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육과정의 평가기록을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비고란을 4등분하여 「총점, 평균, 석차(학급, 학년)」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비고란에 내신성적 산출에 필요한 「환산총점, 환산평균, 학급석차, 계열(학년) 석차」 기록란을 신설하였다.

3. 제3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는 1994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1995. 5. 31 교육개혁 방안)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 개발·시행의 원칙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래의 상대평가를 성취기준평가로 전환하고 둘째,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기록하되 전 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 석차는 기록하지 않으며 셋째, 총괄평가 기능 뿐만 아니라 진단·형성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는 네 차례의 훈령(1996. 1. 20. 교육부 훈령 제527호, 1996. 9. 2. 교육부 훈령 제536호, 1997. 1. 3. 교육부 훈령 제542호, 1997. 2. 25. 교육부 훈령 제545호)의 변화를 거쳤다. 여기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교육부 훈령 제545호(1997)에 제시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각 교과활동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문장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3학년 이상 고학년에서는 성취도를 수/우/미/양/가로 기입하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업성취도를 서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의 원점수에 의한 석차를 기록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4. 제4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기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전산화함으로써 교사의 업무경감,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및 활용의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1997. 12. 1. 교육부 훈령 제558호)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의 훈령(1997. 12. 1 교육부 훈령 제558호, 1999. 5. 1. 교육부 훈령 제587호, 2000. 3. 17. 교육부 훈령 제602호, 2000. 8. 7. 교육부 훈령 제607호, 2001.

3. 29.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훈령 제587호와 제602호,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훈령 제616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훈령 제587호에서는 종래의 학업성적관리지침 중 교과성적에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교육부 훈령 제602호에서는 종래의 ‘학교재량시간’란을 ‘재량활동상황’란으로 변경하고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중·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재량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훈령 제616호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과목,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교과, 과목, 학기별 성취도·석차/재적수, 비교,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과목, 학기별 단위수·성취도·석차/재적수, 비교, 이수 단위합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시기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첫 번째 변화의 특징으로는 중등학생 평가의 기준이 목표에서 평균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중등의 경우 절대평가(제1기)로 교과성적을 기록하던 방식에서 상대평가(제2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제4기) 체제로 변화해 왔다. 초등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일관되게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변화의 특징으로는 교과성적의 기록이 보다 상세하고 풍부해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제1기에는 학생의 교과발달상황을

<표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 변천

구분	훈령	주요 특징
제1기: 생활기록부 서식 및 처리요령	제10호(1955.01.25) 제21호(1956.05.07) 제24호(1956.10.12)	초·중·고: 수/우/미/양/가 5단계 평정치 기록 초·중 : 하위평가 영역별로 5단계 평정 특기사항, 지도경과 란 기록 고 : 중학교의 교과 평가 결과 기록
제2기: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제146호(1964.06.24)	초·중: 교과 내 평가 항목의 축소 고 : 단위수 추가 기록
	제286호(1976.02.26) 제459호(1989.02.23)	고: 학년말 총합평가결과를 기록하던 것을 학기말 평가결과를 기록하도록 함. 초: 1, 2학년의 통합교육과정의 평가결과를 문장으로 기록 중: 총점, 평균, 석차(학급, 학년) 기록란 신설 고: 환산총점, 환산평균, 학급석차, 계열(학년)석차 기록란 신설
제3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제545호(1997.02.25)	초 저학년: 교과활동평가결과를 문장으로 진술 초 3이상: 수/우/미/양/가로 기입, 세부능력및특기사항란에 서술식 기입 중·고: 중간, 기말고사 원점수에 의한 석차 기입, 동점자수 병기
제4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587호(1999.05.01)	교과성적에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하도록 함.
	제602호(2000.03.17)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을 구분하여 기록. 중·고: 선택과목과 교과재량활동을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기록.
	제616호(2001.03.29)	초: 과목, 세부능력및특기사항 중: 교과, 과목, 학기별 성취도, 석차/재적수,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비교 고: 교과, 과목, 학기별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이수 단위합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 기타

단순하게 5단계로만 기록하였고, 제2기에는 초등 학교 1, 2학년 통합교육과정의 평가결과에 대한 문장 기록란과 중고등학교의 총점, 평균, 석차 기록란이 신설되었으며, 고등학교의 학년말 기록이 학기말 기록으로 기록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제3기에는 초등 저학년 교과활동평가결과의 문장 진술과 초등 고학년의 5단계 평정과 서술식 기입, 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 석차 기입이 가능하였다. 제4기에는 초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과 중고등학교의 학기별 성취도, 석차/재적수, 세부능력및특기사항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Ⅲ.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이 절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라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이 도입될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다음으로 이 새로운 교과성적 기록방식이 과연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현 행				⇒	개 정			
과목	1학기				과목	1학기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A	3	수	4(15)/532		A	3	95/70(10)	1(532)
B	2	우	88/532		B	2	85/73(11)	3(532)

[그림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방식 개정안

제기하고자 한다.

1. 2008학년도 이후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주요 내용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학생선발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강조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던 중 최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2004.08)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입전형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성적 산출의 신뢰도를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방식으로 「원점수 + 과목평균(표준편차) + 석차등급(이수자 수)」표기제를 도입하였다.

[그림1]에 제시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개정안은 성취도를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목별 석차/재적수를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과열 석차 경

쟁과 동석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9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5등급화는 같은 등급내의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져 대입전형시 선발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15등급화 이상은 7차 교육과정상 과목 개설 최소인원(20명 이상)을 고려할 때 석차 등급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절대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려고 의도하였다고 한다. 면,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은 절대평가를 완전 배제함으로써 상대평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동안 절대평가를 통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던 성취도 기록 부문의 점수 부풀리기와 과다하게 발생한 동석차가 이번에 새로이 개정될 완전 상대평가를 통한 교과성적 기록에서는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록으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새로운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교과성적 기록방식은 점수 부풀리기를 해소하면서 학생 집단의 성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록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교과성적 기

록방식은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 정신에 부합하는가? 둘째, 새로운 기록방식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성적 기록을 고려하고 있는가? 셋째, 새로운 기록방식으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가. 제7차 교육과정 정신에의 적합성 부족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은 상대평가 체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제7차 교육과정은 절대평가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어야 하며, 교과별로 절대평가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7). 이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과는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절대평가는 목표에 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방식은 절대평가를 통한 5단계 평정치 기록의 방식에서부터 현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초등은 물론 중등의 경우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과목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가 중시되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상대평가에 의한 교과성적 기록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절대평가에 의해 교과성적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던 데 기인하였음을 앞서 지적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교과성적 기록안은 성적을 부풀리지 않고 학생들간의 경쟁을 통한 성적 향상의 가능성도 높이면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성적을 기록하는 하나의 의미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교과성적 기록안은 절대평가를 추구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안은 절대평가를 중시하거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세계적인 교과 평가의 동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교육평가는 학생들을 갈라놓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발달을 위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허숙, 2000). 교과성적 역시 교과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거나 분류하는 데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교과목표의 달성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교과능력의 발달을 꾀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이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 비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과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에 관한 지침 부재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으로 기록하는 일은 종전과 비교하여 그 기록 방식이 달라진 것일 뿐,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동학년 학생들의 석차를 산출하여야 하는 성적 기록 방식으로 인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준별로 심화, 보충 수업을 하더라도 수준별로 수업한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산출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난점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으로 지필평가에서는 공통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행평가에서 수준

별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평가기준의 설정과 적용상의 어려움, 수행평가의 자료와 도구 부족,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의 부적절성,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된다(강승호, 2001).

지필평가의 경우에도 수준별 평가상의 문제가 있다. 국가 지침에서처럼 평가를 공통부분에 국한하게 되면 하 수준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상 수준이나 중 수준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학습한 심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박경미, 2004). 이는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교육평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 수준이나 상 수준에 맞추게 되면 하 수준의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 문항에서 처음 접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준별로 평가 문항을 달리하거나 평가지를 달리 하려고 하여도 동학년 전체 학생들의 석차를 동등화하여 산출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수준별 평가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중등 교과성적의 경우 성취도와 석차를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즉, 수준별로 수업 내용을 달리하였을 때 성취도와 석차를 어떻게 평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준별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새로이 도입될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교과성적 기록방안의 경우에도 수준별 교과 성적의 기록을 어떻게 부여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준별 교과 성적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교과성적

기록방식은 수준별 교과 성적기록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의도되지 않은 문제점

새로이 제안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의 기록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경우 몇 가지 의도되지 않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새로운 교과성적의 기록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의 의존 비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대평가 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전우홍, 양정호, 2004). 이는 학교생활 자체에 열중하지 않으면 상대평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석차 등급을 강제 할당하여야 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높은 등급의 석차를 얻기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교과성적의 기록방식으로 인해 사교육의 의존 비중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줄곧 선언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वाद도 더욱 요원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고등학교 교과성적의 기록안은 신뢰도만 높고 교과 능력에 관한 충실한 기록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이 입시자료로서의 가치만 높고,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내신의 기록이 보다 충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성적의 기록 또한 더욱 충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운 교과성적 기록안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으로 학생의 상대적 정보만 제시할 뿐, 학생의 교과능력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과성적 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교과 목표에 타당한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각 교과 목표에 타당하고 충실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목별로 세분화된 하위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거나 각 과목별로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여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기록의 타당도를 높이고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과 성취에 관한 보다 충실한 기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개선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 출력의 이원화 방안, 언어기록의 활성화 방안,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 지침 개발 방안이다.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 출력의 이원화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성의 강제성을 지닌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에 대한 교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는 교과성적에 관한 정보 역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교육적 자료로서의 교과성적은 학생과 교사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학생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시켜주며 교육적 지도와 교수 학습 전략의 적절한 변화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교육과정에 타당하고 충

실하게 교과성적을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 자료로서의 교과성적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학생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의 교과 영역에서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최종의 타당한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양이 최소이면서 교과영역의 성취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이 가능한 형태로 교과성적을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용도는 단 하나의 학교생활기록부 문서로는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각각은 관점과 필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유용함과 무용함의 범위를 제공한다. 이때 한 가지 문서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려고 한다면 유용함보다는 무용함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성적을 단 하나의 등급이나 점수로 기록한 경우 이는 개개인들간의 다양한 수행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며, 교과성적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한 경우 이는 입학 사정의 비효율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입력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용도에 따라 그 출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용도가 교육적인 지도에 있다면,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에서 도출된 준거에 근거하여 지식과 기능을 모두 열거하고 그 성취 정도를 기록한 형태로 출력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용도가 전형 자료로서의 평가에 있다면, 교과성적은 총괄적인 판단이 가능한 총괄적인 형태로 출력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형태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각 과목의 하위 영역별 성취도와 노력도, 그리고 교사의 서술적인 코멘트가 출력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 형태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안에 따른 교과성적 기록안에 따른 정보들이 출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요로 하는 상급학교나 기관, 교사

들이 그 용도에 따라 필요한 형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활용함으로써 활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의 조화 증대를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및 보존의 이원화(김재춘 외, 2004) 방안과도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언어기록의 활성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에는 그동안 존재하였던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란에는 초·중등 모두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란이 있다. 초등의 경우에는 이 란에 각 교과와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등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목별로 언어의 형태로 성적이 기록되지만, 중등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목별 언어 기록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교과 성적 및 성취에 관하여 문장 및 언어로 기록하는 방식은 각 교과별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교과에 관한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상당히 충실하면서도 상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안의 특징은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여 교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과목의 하위 영역별로 노력도와 성취도를 표기함으로써 학생의 교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경

우에도 문장으로 학생의 교과 능력을 보다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현행 각 교과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능력및특기사항’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우선, 초등의 경우에는 현행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란의 지면을 단 몇 줄 정도 적는 정도의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최대 A4 용지 1/2에서 1장 정도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도록 적극 장학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언어 기록은 학생 개인의 발전, 태도, 행동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촉진하여야 하며, 미래의 잠재력을 예측하여 지도를 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간의 의견 교환을 이끌어야 하며, 학부모, 학생, 교사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 성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 언어 기록을 활성화하게 되면 학생 성적 기록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많은 교정적 정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 활동상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 방식 뿐만 아니라 대안의 기록 방식으로 언어기록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3.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 지침 개발

수준별 교과의 성적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최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 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김재춘(2004)은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준별 평가 방안

으로 수준별 평가 문항의 배점 차별화 방안과 수준별 집단간의 성적 동등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수준별 평가 문항의 배점 차별화 방안은 수준별 문항들을 골고루 포함하되 각 수준에 따라 배점을 차별화하여 수준별로 만점이 차별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즉, 공통문제와 심화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100점 만점을, 공통문제와 발전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90점 만점을, 공통문제와 기본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80점 만점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 어떤 수준의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권한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평가 문항의 배점 차별화 방안은 실제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준별 집단간의 성적 동등화 방안은 수준별 집단간의 점수를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는 각 수준별 집단에서 받을 수 있는 성취도와 만점 점수의 상한선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심화반에서는 최저 미, 13점에서 최고 수, 22점을 받을 수 있고, 발전반에서는 최저 양, 7점에서 최고 우, 16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본반에서는 최저 가, 1점에서부터 최고 미, 10점까지 받도록 한다. 이때 수준별 집단을 편성할 때 상대적인 석차를 기준으로 삼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되는 집단에 소속되어 부당한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수준별 집단간의 성적 동등화 방안이 독일의 통합형 종합중등학교의 평가 방안에서 응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수준별 집단간의 성적 동등화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사립 고등학교의 사례(소경희 외, 2000)를 보면, 교과성적에 대한 평가는 교과별로 13단계의 평정 척도에 근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해당 등급에 속하는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 산출시 Honors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0.25점을, AP 수업을 들은 경우

에는 0.5점을 추가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강좌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안도 수준별 평가에 따른 성적을 부여하는 데 참조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개한 방안들은 한편으로는 수업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교육평가의 이론적인 맥락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하는데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맥락에서 그 의의가 큰 방안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방안들은 수업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면서도 수준별 평가에 따른 성취도 및 석차 산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고, 그 평가 결과의 기록 부문에 있어서도 현행의 교과영역 평가방안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안에 따른 교과영역 평가방안과 일치하여 실행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 교과영역의 평가 방안에 있어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백순근, 2000; 허경철 외, 1999)가 없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김신영, 2002) 또 현행의 교과영역 평가 방안을 인정하면서도 수준별 수업에 일치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수준별 평가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일치하는 수준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에서 평가 내용은 수준별 수업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 둘째, 수준별 문항이 혼합된 공통의 평가지를 활용하는 경우, 각 문항의 수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수준별로 평가지를 달리하는 경우, 각 집단의 성적을 동등화하거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V. 맺는 글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안은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절대평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 둘째,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셋째, 사교육에의 의존 비중을 확대시키고 충실한 기록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출력의 이원화 방안과 둘째, 언어기록의 활성화 방안, 셋째, 수준별 교과의 성적 부여 지침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성적 기록에 관한 의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가란 학생의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즉, 평가란 학생들을 분류하거나 비교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교육적인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진학 수단으로서만의 평가관에서 벗어나 교육 본위의 평가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각 교과별, 단위별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에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 단계의 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준'과 각 단계 말에 학생들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수준'을 제시해 놓았다. 이 목표 달성 기대 수준은 각 교과별 학업 성취에 관한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과정과 교과별 절대 성취 기준을 별도로 개발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자체가 교과별

절대 성취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업무 시간의 적지 않은 시간을 평가 업무에 할애하고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평가와 관련된 전문 훈련을 받은 경험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영, 2002; Shafer, 1993; Stiggins, 1991). 실제 우리나라 현장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연구한 김신영(2002)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평가 결과에 관하여 의사소통하고 성적을 부여하며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의 논의부분에서도 요구되었던 것처럼 학생의 교과능력을 평가하고 기록할 교사에게는 학생의 교과능력을 목표에 타당하게 평가하고 기술하며 교육과정에 일치하도록 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과영역 학생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승호, 학교현장에서의 수행평가 실시상의 문제점과 정착방안, 교육평가연구, 14(1), pp.1~21, 2001.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 2004. 08.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질의·응답 자료-, 2004. 02. 17. 2004.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 처리 및 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 2001.
- 교육부,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1997.
- 국제신문, 고교 '내신 부풀리기' 기준 확정, 2005. 02. 04.
- 김명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 *교육평가 연구*, 16(1), pp.241~264, 2003.
- 김신영, 현장교사의 평가전문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pp.67~85, 2002.
- 김석우, 김정섭, 정성아,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생평가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2(1), pp.45~74, 2004.
- 김수천, 김두정, 김재춘, 제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 학교생활기록부 보완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2000.
- 김재춘, 수준별 이동수업: 실행의 기본 조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43,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pp.1~17, 2004.
- _____,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 2004-7,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연구*, 2004.
- 김재춘, 박소영, 손민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보고서 2004-일-03*, 2004.
- 박경미,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43,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pp. 43~45, 2004.
- 박순경,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43,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pp.19~39, 2004.
- 백순근, 수행평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교육과학사*, pp.201~231, 2000.
- 성태제, 교육평가의 변화와 역할,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교육과학사*, pp.39~56, 2000.
- 소경희, 채선희, 정미경,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0-6-1*, 2000.
- 이화진, 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부재율, 김성기,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연구 보고서 2000-일-23*, 2000.
- 전우홍, 양정호, 수능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2004 한국교육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 200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개발 연구(총론), *연구보고 RRE 98-3-1*, 1998.
- 허경철,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의 과제와 전망,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교육과학사*, pp.295~317, 2000.
- 허경철, 김성숙, 김신영, 백순근, 조덕주, 채선희,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1999.
- 허경철, 조덕주, 생활기록부의 서식과 기입요령,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허숙, 학교교육과 교육평가의 논리: 인간교육의 과제, *황정규 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교육과학사*, pp.21~37, 2000.
- Goacher, B. J., *School Records and Reports*, Walberg, H. J. & Haertel, G. D. (ed.) *The Inc.*, 1990.
- Schaffer, W. D., *Assessment Literacy for*

teachers, *Theory in Practice*, 32(2), pp.118~126, 1993.
Stiggins, R. J., Relevant classroom assessment training for teacher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0(1),

pp.7~12, 1991.
www.moe.go.kr,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 2004, 08.